

#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96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4.14

##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 홈페이지

theway.news



# 주일에배

##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건명 집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서 교독..... <시편65편>..... 다같이

- (인도자) 하나님이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 (성도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 (인도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 (성도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 (인도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 (성도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 (인도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 (성도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 (인도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 (성도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 (인도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 (성도들)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 (인도자)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 (다같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 찬송과 감사

- 찬양 .....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 말씀과 나눔

- 말씀 교독과 듣기 ..... <고린도전서 4장> .....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 **다같이**  
 말씀권면 ..... 전정민 전도사  
 묵상 기도 ..... **다같이**  
 응답의 찬양 .....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sub>3</sub> F

사 랑 의 나 눘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 말씀 기도 ..... **다같이**

## 응답과 축복

- ✠ 감사 찬양 ..... <주의 은혜라> ..... **다같이**  
 ✠ 결단과 축복 ..... **다같이**

-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성경말씀 메시지

1-4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 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5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선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을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6 친구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아볼로와 나에게 적용해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조심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7-8 여러분을 정말로 아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해 낸 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과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전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볼로나 나를 제쳐 둔 채 세상-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꼭대기에 앉아 있군요. 우리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9-13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허드렛일을 얻어 근근이 생계를 꾸려 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4-16 나는 나무라듯 하는 이 웃처럼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 모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아버지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 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가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7 그런 이유로, 나는 먼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님께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과 관련해서 모든 교회에 늘 제시하는 가르침을, 그가 여러분에게 새로이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18-20 여러분 가운데 자만해서, 내 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을 찾아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허세가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道)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 입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러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는 엄한 교관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속마음을 터놓는 다정한 벗이나 상담자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 성경말씀 개역개정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 말씀묵상



# 감사찬양

## 주의 은혜라

손경민

내평생 살아온길 뒤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평생 살아온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없는 사랑  
 달려갈길 모두 마친후 주 얼굴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은혜라 지금  
 까지지-내온것 주의크신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이 루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 펴주-시키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평생 살아온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없는 사랑 주의 랑  
 달려갈길 모두 마친후 주 얼굴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은혜라



# 교회안내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3:00
사모공동체 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30~3:00

##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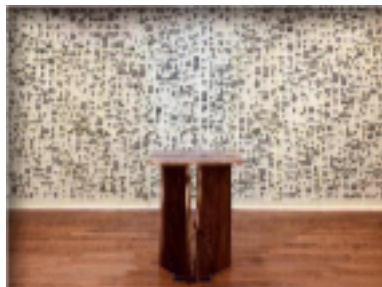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 길목교회 가치추구

##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 메모



# 공동체소식

##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다음주 예배

다음주일예배는 4월 나눔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인도: 이건명 집사)

## 점심식사 섬김

4.28 - 장천, 장현주 집사 / 5.26 - 김점순 집사  
6월 - 권종신, 이길주 목사 / 7월 - 박사무엘, 전정민 전도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함께 나누어주세요 ^^

##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

담임목사님이 성지순례 사역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4.10(수)-26(토) / 사역지: 튀르키예

##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성경공부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특별모임 (오후10:00-오후11:00, 온라인)  
매주 금요일 사모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  
- 참여문의: 이메일 iam@theway.news